

#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일고찰

건괘를 중심으로

최영진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교수, 역학 전공  
choijin777@hanmail.net

이선경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역학 전공  
yy-ss-kk@hanmail.net

- I. 머리말
- II. 건괘 괘·효사에 대한 해석의 특징
- III. 건괘 「단전」 해석의 특징
- IV. 건괘 「문언전」 해석의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은 세간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의 사상을 계승한 실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걸친 학문 역정을 살펴보면, 15세에 역학(易學)에 입문한 이후 생애의 대부분을 역학연구에 몰두한 역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학자로서 신후담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며, 따라서 그의 역학 사상에 대한 연구도 매우 드물다.<sup>1)</sup> 이 글에서는 신후담 역학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의 대표 저술인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건괘(乾卦)에 대한 주해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역학이 지니는 구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이 27세에 착수하여 33세에 「잡괘해(雜卦解)」까지 모두 완료한 것으로, 생애 중기에 해당하는 저작이다.<sup>2)</sup> 선행연구에서는 이 시기 신후담의 역학적 관심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역학을 힘써 공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 『주역상사신편』이라고 보았다.<sup>3)</sup> 즉, 정주역학의 수용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저작을 고찰한 결과, 신후담이 큰 틀에서 정·주의 역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 1) 신후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서학변」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고, 철학사상 방면의 연구로 그의 사칠론에 대한 논문이 한 편 있다(강병수,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사칠론(四七論) 전개 -희노이발설(喜怒哀發說)의 형성 배경과 그 영향-」, 『한국실학연구』 22권, 한국실학학회, 2011). 필자가 조사한 바로 신후담의 역학과 관련한 연구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에 관한 교육적 고찰」(신용일, 『인하교육연구』 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7)과 신후담의 생애와 역학적 관심의 추이를 총괄적으로 논의한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강병수, 『한국사상사학』 16권, 한국사상사학회, 2001)가 있다. 강병수의 논문은 신후담의 가계와 학맥, 그의 생애와 학문적 관심의 추이를 추적하여 신후담의 역학적 관심의 변천과정을 소상하게 서술하였다. 신후담의 역학 관련 2차 자료는 이 정도이며, 신후담의 역학저술을 직접 분석하여 그 사상적 특징을 다룬 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2006년 『하빈선생전집(河濱先生全集)』(아세아문화사)이 발간됨으로써 신후담 역학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일차적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연보에 보면, 신후담이 만년(57세, 1758)에 『주역상사신편』을 수정했다고 하였는데, 『하빈선생전집』에 실린 본이 만년의 수정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신후담의 역학관이 중기와 후기에 변화가 있다고 할 때, 서지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보다 정밀한 연구가 될 것이다.
- 3) 강병수는 그의 논문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에서 신후담의 중기역학은 10대의 노장적 관심에서 벗어나, 정주역학을 공부하고 수용하는 시기로 보았다. 19세에 『역학계몽보주』를 지은 것은 주자 역학을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33세에 완성한 『주역상사신편』은 주자보다는 대체로 정자의 역학을 따른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주해에서는 정·주자와 다른 독특한 면모를 지남을 발견하였다. 정·주자와 같이 신후담도 역의 해석에서 ‘의리(義理)’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자가 상(象)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신후담은 철저하게 상에 입각하여 괘효사(卦爻辭)를 설명한다. 또한 주자의 『본의(本義)』는 점(占)을 중시함에 비하여, 신후담의 『주역』 건괘 해석에서는 점을 말하지 않는다. 주자도 상(象)에 입각한 해석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방법론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데 비해, 신후담은 철저하게 상에 입각하여 해설하고, 또 항상 효변(爻變)을 전폭적으로 활용하여 해석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과 ‘효변’에 입각한 해석은 건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4괘 384효에서 모두 그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4)</sup> 다른 한편 정주역학에서는 괘효사 해석에서 응비론(應比論)의 윤리적 적용이 두드러진다. 신후담은 응비(應比)를 통한 괘효사의 윤리적 해석을 수용하는데, 그의 응비론 활용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보다 유기적이고 세밀한 체계로 전개됨을 볼 수 있다.

신후담은 『주역』의 편제에서도 『주역전의(周易傳義)』에서와 같이 상경(上經)·하경(下經)·공자의 십익(+翼)을 합쳐 12편으로 나누지만, 『주역전의』의 곤괘(坤卦) 이하 배열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주역전의대전』의 경우 건괘는 괘사-효사-단전-상전의 체제인 데 비하여 곤괘 이하는 괘사-단전-대상전-각 효사 및 각 소상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후담은 곤괘 이하에서는 경문 사이사이에 「역전」이 삽입되어 경문과 전(傳)이 뒤섞여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본다. 그는 『주역상사신편』에서 건괘의 체제에 따라 『주역』을 다시 편집한다.<sup>5)</sup> 이는 경(經)은 경대로 전은 전대로 모으는 방식으로서, 여기에서 신후담이 『주역』의 경문과 「역전」 사이에는 일정한 사상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후담은 그의 중기역학에서도 단순히 정·주의 역학을 수용하

4) 이 글은 『주역상사신편』의 건괘를 분석하는 것으로 체제를 구성하였으므로, 나머지 괘효사의 해석에서 효변과 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건괘의 경우가 다른 괘에 비하여 신후담의 효변과 상에 입각한 해석이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후담이 64괘 384효의 해석에 대해 모두 효변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사례로 주 49)에 屯卦와 明夷卦에 대한 신후담의 언급을 실어놓았다.

5) 愼後聃, 『周易象辭新編』 영인본(아세아문화사, 2006), 4쪽. “分爲上下經, 竝孔子所作之傳十篇, 凡十二篇. 費直王弼以象象文言傳, 連經文而繫辭以下, 則別行. 程子因之, 但費王於乾卦, 則錄象象傳, 於卦辭爻辭之下, 其序固正, 坤卦以下則卦辭下即錄象傳大象傳, 爻辭又爻爻而附象傳, 經與傳相雜, 今改正一依乾卦之例.”

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삼아 응용하여 자신의 역학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후담에게서 보이는 ‘효변(爻變)’에 입각한 해석은 다음 세대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서 체계화되어 완전한 방법론으로 구축됨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 II. 건괘 괘·효사에 대한 해석의 특징

### 1. 괘사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이해

조선시대 학자들의 『주역』 이해는 대체로 『주역전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신후담의 『주역』 해석은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독특하다. 그 특징을 『건괘』 괘사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볼 수 있다.

정자가 건괘 괘사를 「문언전(文言傳)」에 근거하여 ‘원, 형, 이, 정(元亨利貞)’으로 풀이한 데 비하여, 신후담은 주자와 같이 ‘원형(元亨), 이정(利貞)’으로 풀이한다. 신후담은 괘사의 원형이정을 길흉을 결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자 역시 경문은 문왕의 것으로, 「역전」은 공자의 것으로 분리하여 본다는 점에서 신후담과 상통한다. 그러나 신후담의 경우 ‘원형, 이정’ 해석 시 철저하게 ‘상’에 입각하여 독자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원형’은 구오효에 해당하며, ‘이정’은 초구, 구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건괘의 여섯 효 가운데 1, 3, 5가 제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원(元)’의 의미는 ‘선함과 큼’이고 ‘형(亨)’은 ‘통한다’는 뜻이므로, ‘원형’은 ‘선하고 커서 통한다’는 뜻이 된다. 상에 입각하여 볼 때, 구오는 강건하고 중정(中正)한 자질을 지닌 데다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 한 괘의 종통(宗統)이 되므로 ‘선하고 크다’. 그래서 오효는 ‘원(元)’이 된다.<sup>6)</sup> 그러면 오효가 ‘형(亨)’한 것은 어째서인가? 형통함은 오효가 나머지 다른 효들과 화합하여 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는 오효가 형통한 이유를 응(應)과 비(比)의 관계를 활용하여

6) 위의 책, 6쪽. “元亨主五爻而言，利貞主初三兩爻而言，卦之諸陽，惟五與初三得其位，故特以此爲主也。[···] 元，善也，大治。亨，通也。元亨爲善大而通也，五之剛健中正以居尊位，爲一卦之所共宗者，其義爲善大也。”

설명한다. 오효는 상괘의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하괘의 이효와 상응하고, 또 사효·상효와 비(比)의 관계에서 같은 양(陽)의 덕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sup>7)</sup> 그렇다면 구오효는 초효 및 삼효와 어떻게 만나는가? 신후담은 구오효가 구이효를 통하여 이들을 간접적으로 통솔한다고 본다. 건괘의 하괘에서 볼 때, 초효와 삼효는 이효와 비(比)의 관계에서 친밀하므로, 구오효는 구이효를 통하여 초효와 삼효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이것이 구오효가 ‘크게 형통(元亨)’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정(利貞)’에 대한 해석에서 신후담은 ‘이(利)’를 ‘유익함’으로 ‘정(貞)’을 ‘굳고 단단하여 항상됨을 지키는 것’으로 풀이한다.<sup>9)</sup> ‘이정’을 ‘굳고 단단함이 유익하다’로 풀이하는 것은 정주학(程朱學)의 도덕적 풀이와 입장을 같이한다. ‘초효’, ‘삼효’가 ‘이정’한 것에 대한 신후담의 독특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초효와 삼효는 그 자리가 바르기 때문에 ‘굳고’, 또 그 패체가 굳건하므로 ‘곧음’을 지키면서 이효와 친할 수 있기에, 이효의 중정한 덕에 의지하여 ‘크게 조화로움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保合大和)’ 이롭다는 것이다.<sup>10)</sup> 또한 초효와 삼효는 건괘의 주인인 오효와 상응하지 않아서 일견 이롭지 않을 것 같지만, 비(比)의 관계에 있는 이효에 기대어 오효를 따를 수 있으므로 이로울 수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신후담은 건괘 패사 ‘원형이정’에 대해 해석하면서 효의 위치에 따른 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응비론을 유기적 체계로 적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건괘 패사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충실하게 상에 입각하여 의리를 도출하는 신후담 역학의 특징을 볼 수 있다.

## 2. 초구(初九)의 경우

효사 해석에서 신후담 역학의 특징은 효변(爻變)을 활용하여 본괘의

7) 위의 책, 6-7쪽. “五既由中而應二，又有四上之交比爲能同德相與，以濟其健則，此其所以通也。”

8) 위의 책, 7쪽. “五之元也，徒與二四上相與，而失初三當位之陽，則不足以謂之亨，而初三既與二爲比，則五可因二，而統初三，而其爲亨也宜矣。”

9) 위의 책, 7쪽. “利，猶言益也。貞者，貞固守常之意。”

10) 위의 책, 7쪽. “初三以其位之正則可貞，以其體之健則可進，貞而從比，則依其中正之德而保合大和，爲有利益。”

11) 위의 책, 8쪽. “初三之貞，徒與二相得而失五爻居尊之陽，則亦不足以謂之利，而五기 與二爲應，則初三亦可因二而達於五，而其爲利也宜矣。”

효를 지괘(之卦)와의 관련성 속에서 풀이한다는 것이다. 신후담은 초효를 해설하면서 효변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9는 양수 가운데 노(老)이다. 『주역』에는 사상(四象)이 있는데, 9는 노양이고, 7은 소양이고, 6은 노음이고, 8은 소음이다. 시초의 책을 헤아려 삼변(三變)하는 수에서 얻는다. 자세한 것은 「계사전」 〈대연장(大衍章)〉에 보인다. 괘를 긋는 법은 9·7이 양효가 되고, 6·8이 음효가 되는데, 음양의 도는 노(老)는 변하고, 소(少)는 변하지 않으니, 9를 양(陽) 가운데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양이 변하여 음이 되면 건괘의 초구는 중천(重天) 건괘(乾卦)에서 천풍(天風) 구괘(姤卦)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전』에서 이 효사를 인용하여 ‘건괘가 구괘로 간다’고 하였으니, 다른 효에서 9를 말한 것도 이 경우와 같다.<sup>12)</sup>

노양과 노음이 변하고 소음과 소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의 일반적 원리이지만, 신후담은 이를 효변에 적용하고 괘효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신후담은 이 방법에 입각하여 초효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의 의미를 풀이한다. 그에 따르면 건괘의 용(龍)은 양기가 가득한 사물이어서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존재이다. 상을 보았을 때 초구의 용은 아직 미천한 지위에 있고 또 효변에 의해 하괘가 손괘(巽卦, ≡)로 숨어들어가는 상이 있기 때문에 ‘잠룡(潛龍)’이 된다. 그러나 용 자체가 기운이 가득 찬 사물인 데다 초효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굳세고 나아가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천풍(天風) 구괘(姤卦)의 초효에서 하나의 음이 생겨나 잠잠히 있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형국과 같으므로<sup>13)</sup>, ‘쓰지 말라(勿用)’고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신후담은 한편으로 건괘의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된 의미로 삼는데, 초효를 쓰는 것을 왜 경계하는가를 묻고 답한다. 건괘 초효가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호응하는 자리인 사효가 스스로 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딱히 초효를 끌어줄 뜻이 없고, 또 그 자신이

12) 위의 책, 8-9쪽. “九陽數之老者也。易有四象，九爲老陽，七爲少陽，六爲老陰，八爲少陰，因蓍策三變之數，而得之。詳見繫辭大衍章畫卦之法，以九七畫陽爻，六八畫陰爻，陰陽之道，老變而少不變，則稱九者，陽之變者也。陽變爲陰，則乾之初九爲以重天乾變爲天風姤者也。故春秋傳引此爻之辭而曰乾之九，餘爻之言九者，放此。”

13) 『周易』 姤卦. “초육은 쇠로 만든 니(梃, 수레 멈춤장치)에 매어놓으면 곧게 되어 길하고, 가면 융합을 당할 것이다. 약한 돼지가 날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初六，繫于金柅，貞吉，有攸往，見凶，羸豕孚蹢躅).”

합당한 자리에 있지도 못한 데다, 위로 지존한 오호와 너무 근접해 있어서 위태롭다. 초효는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는 바른 덕의 소유자이다. 선불리 사효에 접근하여 자신의 은둔상태를 벗어나려 한다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sup>14)</sup>

### 3. 구이효(九二爻)의 경우

건괘 구이효,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見龍在田, 利見大人)”에 대한 신후담의 이해를 살펴보자. 그는 구이효에 대해 효변(爻變)과 효의 상을 면밀히 고찰하여 구이효의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신후담은 먼저 효변에 의해 건괘 구이효가 동인괘(同人卦, ䷌)로 변한 것임을 말한다. 동인괘는 내괘가 리괘(☲), 외괘가 건괘(☰)가 된다. 건괘 구이효는 초구 잠룡의 은둔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 하괘의 가운데 자리에 있게 되는데, 효변에 의해 리괘의 밝은 몸체가 되므로, (‘설괘전’의 리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과 같이) 만물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뜻이 된다.<sup>15)</sup> 이것이 ‘나타난 용(見龍)’에서 ‘나타남(見)’의 의미이다. 또한 리괘의 이효는 ‘밭(田)’의 상이 되는데, 밭은 가운데가 낮고 양쪽 가장자리로 경계가 있다. 즉, 가운데 음효가 밭의 속이 되고, 초효와 삼효의 양효가 밭두둑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후담은 효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사를 해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구이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신후담은 종래 『주역전의』에 입각한 설명과는 특징을 달리한다. 『주역전의』를 보면, 정이(程頤)는 구이효를 성인의 덕을 지닌 인물이 아직 지위를 얻지 못하여 미친한 시절로 보고, 사람들이 이러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며, 또 구이효는 구오효의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고 한다.<sup>16)</sup> 주자는 짐치는 자가 대인의 덕이 있으면서 구이효를 얻으면 구오효의 대인을 만나는 것이

14) 慎後聃, 앞의 책, 9-10쪽. “乾之時義, 主於健行則初之用也何病而爲之戒哉. 初爻離潛而出用, 則必待應助於外, 而初有四爻之應, 健行在上, 殊無引初之意, 且其不當位, 而逼至尊處地危厲, 則初以居正之德, 其可亡附於四而求以自拔於潛乎. 此其爲戒之意也.”

15) 『周易』「說卦傳」 제5장. “離也者, 明也, 萬物皆相見南方之卦也.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

16) 『周易程傳』 乾卦 九二爻. “以聖人言之, 舜之田漁時也. 利見大德之君, 以行其道, 君亦利見大德之臣, 以共成其功, 天下利見大德之人, 以被其澤, 大德之君, 九五也.”

이롭고, 보통사람이 접치는 경우는 구이효의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고 풀이하고 있다.<sup>17)</sup> 신후담은 효변을 활용한 동인괘의 뜻에 입각하여, 구이효의 위상과 역할이 초효와 삼효를 통솔하여 함께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구이효가 초효와 삼효를 버리고 위로 오효를 따라간다면 오히려 부끄럽고 인색한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신후담은 오효 임금의 뜻이 구이효를 위로 끌어올려 사사롭게 이롭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한다. 오효 임금의 뜻은 오히려 구이효가 아래에서 초효와 삼효에게 혜택을 베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밭에 있다(在田)’는 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는 것은 초효와 삼효가 구이의 대인을 만나서 이롭다는 뜻이 된다.

신후담의 구이효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효가 음의 조급한 성질로 위를 쳐다보며 오효와 호응하고자 경솔하게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아래로 초효와 삼효가 그를 바라보는 신망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효변으로 하괘가 동인괘가 되는 상에서 비롯된 신후담의 독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 4. 구삼효(九三爻)의 경우

건괘 구삼효의 경문은 “군자가 종일토록, 애쓰고 애써서, 저녁에도 두려운 듯이 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으리라(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이다. 신후담은 구삼효를 해석하면서 먼저 구삼효사에 언급된 ‘군자(君子)’, ‘종일(終日)’ 및 ‘건건(乾乾)’의 의미를 본괘효의 상(象) 및 지괘(之卦)의 상(象)을 통하여 설명한다. 구삼효에서 군자를 말한 것은 그 효의 자리가 삼효이므로, 군센 양효가 제자리에 있어서이다. ‘종일’은 삼효가 하괘의 끝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괘인 리괘(履卦, ䷉)의 아래는 태괘(兌卦, ䷹)로서 서쪽 방위를 가리키므로, 해가 저무는 상이 있다.<sup>18)</sup>

‘건건(乾乾)’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신후담의 ‘건건’에 대한 설명은 그 상(象)을 위주로 괘효사를 해석하지만, 상에 입각한 ‘의리’를 추구하고

17) 『周易本義』 乾卦 九二爻。“九二雖未得位，而大人之德已著，常人，不足以當之。故值此爻之變者，但爲利見此人而已，蓋亦謂在下之大人也。此，以爻與占者，相爲主賓，自爲一例。若有見龍之德，則爲利見九五在上之大人矣。”

18) 慎後聃, 앞의 책, 12쪽. “變而爲兌，兌者西方之卦，亦日之所終也.”



있음을 보여준다. 즉, ‘건건’의 의미를 먼저 상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덕(德)을 닦음이라는 결론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건괘의 상괘는 오효를 위주로 하고 하괘는 이효를 위주로 하는데, 삼효는 상괘와 하괘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서 이효와 친하고 오효를 받들므로, 이효·오효의 도리를 모두 쓴다. 그러므로 ‘건건’하다는 것이다. 자리로 볼 때, 삼효는 하괘가 끝나는 위태로운 자리이고 전환의 시기이다. 또한 군세 양으로서 건괘의 끝자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효에게 현인을 무시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고 오효에게도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sup>19)</sup> 따라서 그저 애쓰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애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만 덕을 이룰 수 있다. 저녁때는 사람이 쉽게 해이해져서 스스로 힘써 덕으로 나아가기 어려운데, 구삼효는 애쓰고 애써서 나아갈 수 있으므로 날이 저무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해이하지 않는 것이다.<sup>20)</sup>

신후담은 구삼효의 효변에 의한 지괘인 천택(天澤) 리괘에 ‘예(禮)를 실천하는’ 의미가 있음에 주목한다. 구삼효는 위태로운 처지에서 삼가 예를 실천함으로써 지나치게 강할지라도 허물이 없게 된다. 신후담은 허물이 없을 수 있는 이유로 「계사전」에서 “허물이 없는 것은 선(善)으로 허물을 보완하기 때문이다”라는 한 구절을 제시한다.<sup>21)</sup> ‘선으로 허물을 보완한다’는 것은 『주역』을 마음을 씻는 경전(洗心經)으로 보는 의리학의 대명제이며, 신후담 역시 상에 입각한 괘효사의 해석을 통하여 상수와 의리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5. 구사효(九四爻)의 경우

신후담은 다른 효의 경우와 같이 구사 효사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다(或躍在淵, 无咎)”를 지괘인 소축괘(小畜卦, ䷈)의 상을 끌어 설명한다. 소축괘는 상괘가 손괘(巽卦, ䷸)로 바람을 상징하는데,

19) 위의 책, 13쪽. “陽質陽位，而在乾陽之極，此乃陽剛之太過者也。以是而在二上，疑於慢賢，以是而在五下，疑於凌尊，此其處地之難者也。”

20) 위의 책, 12쪽. “非有乾乾之功，則亦無以致其德之進，君子而乾乾故，知其爲進德也。日之終也，人氣易解，或無以自強而進其德，三能乾乾以進之，則知其終日而不自解也。”

21) 위의 책, 13쪽. “乾乾篤於自修，且其變體之履，爲有謹禮之義，故恐其失而爲之慮也。慮，危也。三之過剛而在難處之地者，可謂危矣。惟其乾惕而不自失，故无咎。大傳曰，无咎者，善補過，其是之謂乎。”

건괘 사효의 용이 하괘를 떠나 상괘로 나아가는 것이 손괘의 바람으로 드날려 ‘뛰어오르는’ 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상괘로 진입하였으므로 오호처럼 날지는 못하고 단지 뛰는 데 머무른다. ‘혹 뛰어오른다’는 것은 위로는 아직 하늘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이미 발을 지나고 삼효의 사람의 자리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신후담은 사효가 부드러운 음의 자리이고, 또 효변에 의하여 손괘가 되므로 스스로 신중한 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간혹 뛰는 것이다. 또한 사효는 음의 자리로 고요한 데다 소축괘로 변하여 지지하는 상이 있으므로 물이 고여 흐르지 않는 모습이 된다. 소축괘의 상을 보면 사효의 음이 위아래로 양효에 막혀 물이 양쪽 벽에 막혀 있는 상이다.

정자(程子)의 『역전』에서는 건괘 구사에 대하여 ‘예컨대 순(舜)임금이 시험을 거칠 때로, 때에 맞춰서 뛰어오르거나 뛰어오르지 않는 것’이라는 요지로 간단히 설명한다. 주자(朱子)의 『본의』는 정자의 『역전』에 비해 상에 입각한 해석을 중시하여, ‘약(躍)’은 ‘인연이 없어 이미 땅에서 떠났으나, 다만 날지 못한다’거나, ‘구(九)는 양(陽)이고 사(四)는 음의 자리여서 개혁의 시기에 진퇴를 결정하지 못한 때’라는 설명을 보태고 있다. 정자와 주자의 해석과 견주어볼 때 신후담의 해석은 보다 철저하게 상에 입각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 6. 구오효(九五爻)의 경우

이제 구오 효사인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자. 신후담은 효변에 따른 지괘(之卦) 대유괘(大有卦)를 가지고 이를 설명한다. 대유괘의 상괘는 리괘(離卦, ☲)인데, 리(離)는 불로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또 날개(羽)의 상이 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나는’ 상이 있게 된다.<sup>22)</sup> 구오의 대인이 하늘의 자리에 있으므로 못 양들이 바라보아 이롭지 않음이 없다. 구오 효사에서 말하는 ‘이견대인(利見大人)’은 ‘여러 양이 구오의 대인을 만나보아 이롭다’는 뜻이 된다. 대유괘 육오효에서는 “믿음으로 서로 사귀니, 위엄이 있으면 길하리라(厥孚交如, 威如, 吉)”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22) 위의 책, 15쪽. “離性炎上, 有羽之象, 亦所以飛也.”

육오의 임금이 마음을 비워<sup>23)</sup> 미더움으로 아랫사람들을 따르므로 상하가 모두 기뻐하며 육오를 따른다는 뜻을 지닌다. 건괘의 경우도 오효의 양이 못 양들을 통솔하므로 ‘대유(大有)’의 상이 있는 것이다.<sup>24)</sup>

## 7. 용구(用九)의 경우<sup>25)</sup>

건괘의 효사는 “용구는 못 용을 보되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用九, 見群龍, 无首, 吉)”로 끝맺는다.<sup>26)</sup> 여기에서 신후담의 특징은 구오를 중심으로 용구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먼저 신후담은 건괘의 육효가 모두 효의 자리에 따라 변화를 논한 것으로 초구·구이·구삼·구사·구오·상구라는 숫자를 표시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제 건괘의 변화를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숫자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용구(用九)’라 함으로써 건괘의 변화가 다하여 곤괘가 됨을 보였다고 한다.<sup>27)</sup> 그는 용구에서의 ‘군룡’은 오효를 제외한 나머지 효들이며, 건괘의 주인인 구오효가 앞서 날아서 못 용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이 ‘머리됨(首)’의 뜻이라고 풀이한다.<sup>28)</sup> 그러나 오효 자신은 강건한 성질을 곱혀 지극히 순한 덕을 지킴으로써 아래와 어울려 그들의 선함을 다 이루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그 다스림을 보완하여 완성하기 때문에 길하다는 것이다.<sup>29)</sup> 이것이 용구의 의미로, 신후담의 설명에 따르면 용구 경문의 해석은 “용구는 못 용들에게 보응(報應)하되 앞장서지 않으면 길하다”가 될 것이다. 용구에 대한 해설의 끝에서 신후담은 어떤 이의 말을 빌려, 용구에서의 ‘견군룡(見群龍)’과 구이효에서 ‘현룡(見龍)’이 상통함을 말하고, 그 의미를

23) 상괘인 離卦(☲)의 가운데 효가 음효이므로 속(마음)이 빈 상이 된다.

24) 慎後聃, 앞의 책, 15쪽. “五有居尊而統諸陽, 故不獨言本爻之義, 而兼言其所統者也. 居天位之尊而統有諸陽, 宜其爲乾之大有也.”

25) 用九 이전에 上九爻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상구의 경우 다른 학자들의 해석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서술을 생략한다.

26)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못 용들이 머리 없음을 보면 길하다(見群龍无首, 吉)”가 될 것이나, 신후담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27) 慎後聃, 앞의 책, 17쪽. “自初九之上九, 遂爻位而論其變也. 用九, 不繫爻位之數而只言九, 則六爻之盡變者也. 乾之六爻盡變則爲坤.”

28) 위의 책, 17쪽. “群龍指諸陽而言. 首卽先之之意, 乾之未變坤也, 五得尊位, 飛以先之爲群龍所利.”

29) 위의 책, 17쪽. “見乾之變爲坤也, 五乃報見群龍, 又不宜以尊自處而爲之先. 此其見群龍無首者也. [...] 乾不自尊, 順以爲恭, 以是而與其下, 足以盡群下之善, 而輔成其治, 此所以吉也.”

‘오효가 지성(至誠)으로 현인을 구하여 여러 용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때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sup>30)</sup> 이러한 풀이에는 이상적 통치는 임금이 단독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인을 구하여 그들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유가의 정치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건괘 「단전」 해석의 특징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단전」의 원문을 먼저 실어두겠다.

단전에서 말하였다: 크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바탕 삼아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섭한다. 구름이 일어나 비가 내리니 각 사물이 형체를 갖춘다. 시작과 끝을 크게 밝히면 여섯 자리가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때에 맞게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운행한다. 건도가 변화하여 각기 성명을 바르게 하니, 큰 조화로움을 보존하고 합하여 이에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못 사물 가운데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雲行雨施, 品物流形. 大明終始, 六位時成, 時乘六龍以御天.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乃利貞. 首出庶物, 萬國咸寧.

「단전」은 단사 ‘원형이정’의 의미를 부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신후담의 「단전」 해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단전」의 원문이 천도의 경우와 인도의 경우로 구별되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둘째, 「단전」의 문장들을 각 효의 구체적 상으로 설명한다.

셋째, ‘수출서물(首出庶物, 못 사물 가운데 으뜸으로 나온다)’의 ‘수(首)’를 구이효로 본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단전」의 문장을 각 효의 상(象)과 부합하게 설명하는 것은 신후담 역학의 일관된 특징이다.

먼저 신후담은 원(元)을 구오효로, 만물을 초효와 삼효로 보며, 구름은 사효와 상효, ‘비’는 이효로 본다. 구름과 비는 모두 음양이 서로 사귀는 기운인데, 구름은 하늘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효·상효가 되고,

30) 위의 책, 17-18쪽. “或曰, 見與九二見龍之見同, 言五盡誠求賢, 以致群龍之竝出見, 用事於時也.”

비는 하늘 아래에 내리는 것이므로 이효가 된다.<sup>31)</sup> 이효·사효·상효는 모두 음의 자리인데 오효의 양과 응비(應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사귀는 상이 된다는 것이다.<sup>32)</sup> 즉, 초효·삼효로 상징되는 만물은 이효와 친밀하고 사효·상효와 호응하여 비와 구름의 혜택을 입어 형체가 완성된다는 것이다.<sup>33)</sup> 결론적으로 오효가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덕으로 하늘을 통솔해서 비와 구름을 내려 만물이 각기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원형’의 뜻이라는 것이다.<sup>34)</sup> 또한 ‘천도가 변화하자 만물이 각기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는 것에서, 구름 끼고 비 내리는 것이 바로 건도의 변화이니, 변화는 이효와 사효의 운행이며 그러한 변화는 건원(五爻)의 천도에 근본하여 아래로 초효와 삼효의 만물에 내리는 것이다.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 ‘명(命)’이고, 개개사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性)’이다. 초효와 삼효가 이 성명(性命)이 있어서 제자리에 거처하는 것이 바로 ‘각정성명(各正性命)’인 것이다. 이것이 천도에서 ‘이정(利貞)’이 된다.

둘째, 신후담은 ‘크도다, 건원이여 [...] 각 사물이 형체를 갖추다’까지는 천도에 입각하여 ‘원형(元亨)’을 말하는 것이고, ‘끝과 처음을 크게 밝혀 [...] 하늘을 운행한다’까지는 인도에 입각하여 원형을 밝힌 것으로 본다. 천도의 경우는 먼저 건원이 만물이 시작되는 바탕임을 말하고, 이어서 구름과 비가 내려 음양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각각의 사물이 생겨나는 형통함에 대하여 말하였다. 인도의 경우 ‘끝과 처음을 밝히면 때에 따라 여섯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其大明終始而始成)’은 성인이 천도의 형(亨)을 체득하는 것이고, ‘때에 맞춰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운행한다’는 것은 천도의 원(元)을 체득한 것이라고 한다. 천도의 경우에는 먼저 ‘원’을 말한 다음 ‘형’을 말하였는데, 인도의 경우에는 ‘형’을 먼저 말한 뒤에 ‘원’을 말하였다. 이는 성인이 천도를 체득해서 천지가 만물을 기르는데 참여하는데, 그 기여함이 지극해서 하늘과 덕을 합하는 지경까지 이름을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명종시(大明終始: 처음과 끝을 밝힘)’의 주체를 성인으로 본 것은 주자도 그러하지만, 신후담은 한 걸음

31) 위의 책, 18쪽. “雲指四上言, 雨指二言, 雲雨皆陰陽相交之氣而雲則行於天上, 雨則施於天下.”

32) 위의 책, 19쪽. “二與四上, 皆居陰位比應五爻之陽位, 有陰陽相交之象.”

33) 위의 책, 19쪽. “二之雨, 四上之雲, 又皆比應乎五則施乃其澤之自天下者也. 下布初三, 遂以成形, 所謂流形者也.”

34) 위의 책, 19쪽. “五以始物之德, 統天之位而行雲施雨, 以致萬品之生成, 則此其元亨之義也.”

더 나아가 천도는 ‘원’ → ‘형’의 순서이지만, 인도는 ‘형’ → ‘원’이라는 수양론적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천도에서 ‘이정(利貞)’은 초효와 삼효가 (건도 변화의 작용을 통해) 성(性)을 바르게 하고 끈게 하는 것이라면, 인도에서 이정(利貞)은 구이효의 성인이 ‘머리가 되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덕이 있고, 초효와 삼효로 상징되는 만국이 편안한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인도에서의 ‘이정’은 성인이 천리를 체득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전」의 구조를 천도와 인사(人事)로 구분하고, 이를 천도 자체와 천도와 덕을 합치하고자 하는 성인의 일로 풀이하는 것은 신후담의 독특한 점이라고 하겠다.

셋째, ‘수출서물, 만국함녕(首出庶物, 萬國咸寧: 뭇 사물 가운데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편안하다)’에서, 정자·주자를 비롯하여 여러 역학자가 ‘만물의 머리로 나오는 것(首出)’의 주체를 구오효로 보는 것과 달리, 신후담은 구이효가 만물의 머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오효가 건도의 변화를 주관하여 상천(上天)의 상이 된다면, 이효는 이를 계승하여 만물을 통솔하는 제왕(帝王)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sup>35)</sup> 신후담은 ‘서물(庶物)’이나 ‘만국(萬國)’을 초효, 삼효의 상으로 보는데, 초효와 삼효가 이효에 의지해서 편안한 것이 바로 만국이 모두 편안한 상으로, 이것이 인도에서의 ‘이정’이다. 구이효는 그 덕이 구오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굳센 건체(健體)임은 구오효와 같기에 구이효의 ‘대화(大和)’와 구오효의 ‘건원(乾元)’이 의미가 상통하며, 지상에서 성인의 사업은 천도를 체득하여 구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sup>36)</sup>

신후담은 건괘 「단전」에 대하여 공자가 ‘천도로써 그 의미를 풀이하고, 성인이 천도를 체현하는 일로 짝지운 것’<sup>37)</sup>이라고 결론짓는다. 신후담의 역학은 ‘상(象)’을 매우 중시하지만,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의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5) 위의 책, 22쪽. “五既主乾道變化爲上天之象，則二乃承天統物爲帝王之象。此萬國所以待二而寧者也。”

36) 위의 책, 22쪽. “二之德備，雖不及於五而剛中以在健體與五同，故以天道以取象。大和與乾元相發，以人道而取象，首出易聖人之事，未必有間於御天也。”

37) 위의 책, 23쪽. “夫子特以天道釋其義而配以聖人體天之事，其旨遠矣。”

#### IV. 건괘 「문언전」 해석의 특징

「문언전」은 십익 중에서도 인문적 해석이 풍부한 문편이다. 신후담은 「문언전」의 특징을 「단전」·「상전」과 대비하여, 후자는 궤사와 효사의 본문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전자는 간혹 별도의 의미를 취하여 본문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의미를 부연하는 점이 다르다고 한다.<sup>38)</sup> 신후담은 『주역전의』에서 「문언전」을 6절로 나눈 체제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체제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6절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1절은 「단전」의 뜻을 밝힌 것이고, 2·3·4절은 「상전」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2절은 주로 여섯 효의 '덕'을 설명하였고, 3절은 여섯 효의 나아가고 기거함(出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4절은 여섯 효의 때(時)에 대해 말하였다고 해석한다. 신후담은 「문언전」이 덕-출처-때의 순서로 배열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재적 흐름을 갖는 것으로 본다. 먼저 덕이 있어야 출사(出仕)하여 도를 행하거나 (집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올바름을 지킬 수 있고, 출처하는 일도 때에 따라 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9)</sup> 5절은 1절의 의미를 반복해서 개진한 것이고, 6절은 2·3·4절의 의미를 거듭 펼친 것인데, 특히 '덕'을 위주로 한다고 설명한다. 즉, 초효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덕을 닦기 시작한 것이고, 이효에서 배우고, 묻고, 너그럽고, 어짙은 덕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삼효에서 '두려워함', 사효에서 '의심함'은 그 덕을 신중하게 닦는 것이어서 허물을 면한다. 오효는 천지와 합일하여 덕이 지극하니, 성인(聖人)이면서 신(神)의 경지인 것이다. 상효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니 덕에 어긋나 그 올바름을 잃은 자이다.<sup>40)</sup> 「문언전」 경문에서는 상효에 대한 설명 뒤 최종적으로 성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즉, 오직 성인이라야 상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38) 위의 책, 48-49쪽. “文言雖與象傳象傳相應，然象傳象傳，順釋象象本文，文言則，或有別取義者，又或隨意詳略，不拘本文，讀者察之。”

39) 위의 책, 40쪽. “右第三節，先言德，次言出處，次言時，蓋有其德然後，處而可守，出而可行，而出處惟在隨時處義而已。”

40) 위의 책, 48쪽. “此第六節，復申第二至第四節之意，而所主者，在於德。初之未見未成則德之始修也，二之學問寬仁則，德之既成也，三惕四疑，慎其德而免於咎也。五之與天地合，則德之至極，聖而神者也。上之知進不知退則敗德而失其正者。終言聖人不然以矯其失也。”

신후담은 이 구절을 용구(用九)의 ‘머리 없음(无首)’의 의미로 풀이한다.<sup>41)</sup>  
 신후담의 「문언전」 분석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주역상사신편』 「문언전」 분석표

	「문언전」 본문	신후담의 해석	
1절	文言曰,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體仁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 乾, 元, 亨, 利, 貞.	「단전」 풀이	
2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初九曰, 潛龍勿用, 何謂也. 子曰, 龍德而隱者也. 不易乎世, 不成乎名, 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li> <li>• 九二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和.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li> <li>• 九三曰,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何謂也. 子曰, 君子進德脩業, 忠信, 所以進德也, 脩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言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是故居上位而不驕, 在下位而不憂.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li> <li>• 九四曰, 或躍在淵, 无咎, 何謂也. 子曰, 上下无常, 非爲邪也, 進退无恒, 非離羣也. 君子進德脩業, 欲及時也, 故, 无咎’.</li> <li>•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而萬物覩,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則各從其類也.</li> <li>• 上九曰, 亢龍有悔, 何謂也. 子曰, 貴而无位, 高而无民, 賢人在下位而无輔, 是以動而 ‘有悔也.</li> </ul>	「상전」 풀이	각 효의 德
3절	潛龍勿用, 下也, 見龍在田, 時舍也, 終日乾乾, 行事也, 或躍在淵, 自試也, 飛龍在天, 上治也, 亢龍有悔, 窮之災也, 乾元用九, 天下治也.		각 효의 出處
4절	潛龍勿用, 陽氣潛藏, 見龍在田, 天下文明, 終日乾乾, 與時偕行, 或躍在淵, 乾道乃革, 飛龍在天, 乃位乎天德, 亢龍有悔, 與時偕極, 乾元用九, 乃見天則.		각 효의 때(時)
5절	乾, 元者, 始而亨者也, 利貞者, 性情也. 乾始能以美利利天下, 不言所利, 大矣哉. 大哉乾乎. 剛健中正, 純粹精也, 六爻發揮, 旁通情也, 時乘六龍, 以御天也, 雲行雨施, 天下平也.	1절 재차 풀이	
6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君子以成德爲行, 日可見之行也. 潛之爲言也, 隱而未見, 行而未成, 是以君子弗用也.</li> <li>• 君子學以聚之, 問以辯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li> <li>• 九三重剛而不中, 上不在天, 下不在田, 故乾乾因其時而惕, 雖危无咎矣.</li> <li>• 九四重剛而不中, 上不在天, 下不在田, 中不在人, 故或之. 或之者, 疑之也, 故无咎.</li> <li>•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li> <li>•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 知存而不知亡, 知得而不知喪, 其唯聖人乎. 知進退存亡, 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li> </ul>	덕을 위주로, 2·3·4절 재차 풀이	德을 중심으로

41) 위의 책, 48쪽. “聖人則知其理勢如是而處之, 不失其正, 故不至於亢也 [...] 用九无首, 可以當此矣.”



이제 신후담이 「문언전」을 해설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문언전」은 상당히 긴 문편이고, 「문언전」 전체 내용에 대하여 신후담이 개괄한 내용을 위에서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패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친다.

신후담은 먼저 ‘문언(文言)’이란 말의 뜻에 대하여 언급한다. ‘문언’이란 말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공자가 했던 말을 문인들이 다시 글로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정한다.<sup>42)</sup> 이제 「문언전」 첫머리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한 신후담의 해석을 살펴보자.

「문언전」 경문에서는 원(元)을 ‘선의 으뜸’으로, 형(亨)을 ‘아름다움이 모인 것’으로, 이(利)를 ‘의(義)가 조화로운 것’으로, 정(貞)을 ‘일의 근간’으로 제시한다.<sup>43)</sup> 이에 대해 신후담은 원(元)이 ‘선의 으뜸’이라는 말은 오호를 가리킨다고 본다. 건괘의 여러 효가 모두 굳센 덕을 지녀 다 선이라 하겠지만, 중정하고 순수한 것은 오직 오호 건원뿐이라는 것이다.<sup>44)</sup> 다음으로, ‘형(亨)이란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다’에 대하여 신후담은 이 구절은 이효·사효·상효의 상을 취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 ‘가(嘉)’는 아름다움의 뜻이고 서로 우의를 함께 교환하는 뜻으로, 예컨대 혼인이나 국가 간의 상견례가 그것이다. 이효·사효·상효는 오호만큼 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답다고는 할 수 있으며, 오호와 비(比)의 관계 또는 응(應)의 관계에 있으므로 오호와 서로 우의를 나누는 뜻이 있다.<sup>45)</sup> 또한 「문언전」 경문에 ‘건(乾)의 시작은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되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 위대하다(乾始能以美利利天下，不言所利，大矣哉)’에서의 ‘아름다운 이로움(美利)’ 역시 ‘형통하고 아름다운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사효와 상효의 구름이 이효의 비로 내려 초효·삼효의 만물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로움으로

42) 위의 책, 26쪽. “文言之稱，未詳其義。疑夫子之所嘗言，而門人追述，以文之者也。”

43) 元은 善의 으뜸이요, 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利는 義에 화합이요, 貞은 일의 근간이니, 군자가 仁을 체득함이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고,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충분히 禮에 합하며, 물건을 이롭게 함이 충분히 義에 조화되며, 貞固함이 충분히 일의 근간이 될 수 있다(文言曰 元者는 善之長也요 亨者는 嘉之會也요 利者는 義之和也요 貞者는 事之幹也니 君子體仁이 足以長人이며 嘉會足以合禮며 利物이 足以和義며 貞固足以幹事니 君子行此四德者라 故로 曰 乾元亨利貞이라).

44) 慎後聃, 앞의 책, 26쪽. “乾之諸爻，皆秉剛德，孰不可謂之善，而中正無雜，惟五爻乾元爲然，則善之至而長於諸爻者也。”

45) 위의 책, 26쪽. “嘉，美也。又交好之義，如以婚姻及兩國相見之禮爲嘉是也。二與四上，皆與五同德，雖不能如五之至善而亦可謂美矣。二之比應乎五，卽五之交好也。”

친하를 이롭게 하는 상이라는 것이다.<sup>46)</sup>

‘이(利)란 의(義)가 조화로운 것이다’에 대하여 신후담은 초효·삼효가 그들과 호응관계에 있는 사효·상효를 버리고 이효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것은 ‘의’를 따라 취사선택하는 행위로, ‘의’를 행함으로써 이효가 지니는 ‘화합하는 이로움’을 함께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초효·삼효가 자신의 올바름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 마치 나무의 줄기가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과 같으므로 ‘정(貞)이란 일의 근간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sup>47)</sup> 또한 「문언전」 경문에서 ‘이정(利貞)이란 성정(性情)이다’라 함에 대하여, 먼저 ‘성(性)이란 초효와 삼효가 건원이 내려준 것을 받아 바르게 보존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효·삼효가 이효를 따르는 것과 같이 덕을 좋아하는 것이 ‘정(情)’이라고 보았다. 이때의 정(情)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 그대로가 발휘되는 정으로서 ‘선을 좋아하는 공리(公理)’의 발현으로 보았다. 그 성품대로 발휘하여 이효를 따라 이로움을 얻기 때문에 ‘이정(利貞)이란 성정(性情)이다’라고 한 것이다. 신후담의 설명에 따라 이 경문을 해석하자면 ‘곧게 함이 이롭다는 것은 발휘된 정이 그 본래 성품대로이기 때문이다(利貞者, 性情也)’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신후담의 「문언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결과, 신후담의 중기 역학사상은 정자와 주자의 역학을 기반으로 하되 그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신의 방법론을 모색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역』의 편제를 『주역전의』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경(經)과 전(傳)을 분리하여 구성하고, 「문언전」의 경우는 『주역전의』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되 자신만의 구체적 해석을 제시함을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주역상사신편』 건괘를 중심으로 신후담 『주역』 해석의

46) 위의 책, 41쪽. “行四上之雲, 施二之雨, 以及初三之物, 此其以美利天下者也. 其云美者, 取亨嘉之義也.”

47) 위의 책, 27쪽. “初三之舍四上而從二者, 取舍合宜, 可謂義矣. 以是而見與於二有保合之利, 則是爲行義, 而獲其和者, 故曰利者, 義之和, 初三既貞正以從二, 則固守不變爲如木幹之堅植, 故曰貞者, 事之幹.”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역』의 편제에 대하여 신후담은 『주역전의』와 같이 전체를 12편으로 나누지만, 곤괘 이하 괘사-단전-대상전-각효사와 각 소상전의 배열구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경(經)은 경(經)대로, 전(傳)은 전(傳)대로 분류하는 건괘의 괘사-효사-단전-상전의 체제로 『주역』 전체를 다시 편집하였다. 이는 『주역』의 ‘경’ 부분과 ‘전’ 부분에는 일정한 사상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신후담의 『주역』 해석은 『주역상사신편』이란 책명과 같이 ‘상(象)과 사(辭)’를 풀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 해석의 주요한 방법론은 ‘효의 자리와 상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찰하는 것’과 ‘효변’이다. 괘효사에 대한 해석을 보면, 먼저 각 효의 자리(位)와 그에 따른 상(象)을 면밀히 분석하여 괘효사를 해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건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64괘 384효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주요한 방법론이다.<sup>48)</sup> 또한 각 효를 모두 효변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역시 건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64괘 384효 해석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임을 볼 수 있다.<sup>49)</sup> 신후담의 『주역상사신편』은 괘효사에 대한 의리적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정주역학을 계승하고 있으나, 『주역』 해석에 효변이라는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정주역학에서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sup>50)</sup>

48) 조선시대 『주역』 해석사에서 상을 중심으로 풀이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조호익(曹好益)의 『역상론(易象論)』, 심조(沈澹)의 『역상차론(易象筭論)』 등에서 그러한 시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후담 이전에 『주역』 전체를 이와 같이 철저히 물상에 입각하여 해석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49) 구체적 사례로 『주역상사신편』에서 屯卦(䷂)와 明이괘(䷔) 각 효 해석의 첫머리를 제시해보겠다.

屯卦(䷂)		明이괘(䷔)	
초구	是爲屯之比也	초구	是爲明夷之謙也
육이	是爲屯之節也	육이	是爲明夷之泰也
육삼	是爲屯之既濟也	구삼	是爲明夷之復也
육사	是爲屯之隨也	육사	是爲明夷之豐也
구오	是爲屯之復也	육오	是爲明夷之既濟也
상육	是爲屯之益也	상육	是爲明夷之賁也

50) 주지는 효변을 점사의 풀이에 일관된 원칙으로 사용하였지만, 괘효사를 풀이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서점(筮占)에서 얻은 동효(動爻)는 모두 효변하는 방식이어서, 신후담의 효변이 효사 풀이를 위해 1개의 효를 변화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리고 신후담 이전 조선의 학자들의 저작에서 효변을 효사의 해석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간간히 있으나, 이는 경우에 따라 산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효사에 적용되는 체계적 방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효사의 해석에서 소성괘의 효변을 적용하거나, 호체를

셋째, 신후담은 「단전」의 원문이 천도(天道)의 경우와 인도(人道)의 경우로 구별되어 순차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단전」의 문장들을 각 효의 구체적 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수출서물(首出庶物: 못사물 가운데 으뜸으로 나온다)’의 ‘수(首)’를 구이효로 보았다.

넷째, 신후담은 『주역전의』에서 「문언전」을 6절로 나눈 체제는 그대로 수용하지만, 전체 6절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2절에서 4절은 여섯 효의 덕-기거함(出處)-때(時)에 대해 말한 것으로 내용상 내재적 흐름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 글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신후담의 역학사상을 사상사적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후담은 성호 이익 문하의 공서파(攻西派) 실학자로 분류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역학사상은 일정한 공통분모가 있는데, 청대 고증학의 영향으로 문자고증 및 역사적 전거에 입각하여 『주역』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주역학의 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성호 이익(168-1763), 하빈 신후담(1702-1761), 초정 박제가(1750-1805), 석천 신작(1760-1828), 다산 정약용(1762-1836) 등의 역학에서 그러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이익으로부터 정약용에 이르는 실학파의 역학사상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어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익과 신후담은 비교적 정주역학(程朱易學)과의 친연성이 강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이미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후담의 경우 후기로 갈수록 정주역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후담이 64괘 384효를 해석하는 데 일관된 방법론으로 적용한 효변과 정약용의 『주역』 해석 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효변의 관계에 대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약용은 그의 역작 『주역사전(周易四箋)』에서 역(易)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효변(爻變)·추이(推移)·물상(物象)·호체(互體)를 들고 이를 하나의 체계적 방법론으로 정리하였다.

---

보고 그 호체를 다시 효변하여 본효사의 해석에 적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는 본효사를 직접 효변한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송시열 『역설』 豫卦(䷏) 육삼효에 “손괘(巽卦, ䷸)는 진괘(震卦, ䷲)가 음양이 바뀐 괘로서 백안시하는 상이 된다. 호괘인 감괘(坎卦)의 음양이 바뀐 괘가 리괘(離卦, ䷄)로서 눈이 되는데 삼효는 감괘의 첫 자리가 되니, 이 역시 올라다보는 모습이다(巽爲多白眼, 震之錯也. 互坎錯離目而三居坎初, 是亦上視也)”라 한 것이 이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신후담의 경우는 예괘 육삼을 해석하면서 곧바로 “이는 예괘(䷏)가 小過卦(䷛)로 바뀐 것이다(是爲豫之小過也)”라 하여 본효사를 효변하여 예괘 六三을 해석한다.

특히 이 가운데 384효 전체를 효변을 통하여 해석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이전에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약용 역학의 특징으로 논의되곤 한다.<sup>51)</sup> 그러나 신후담 역학에서 이미 384효 전체에 효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사를 해석하는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때<sup>52)</sup>, 향후 양자의 효변론에 대한 비교연구 및 실학과 역학사상으로서 성호학과 역학사상에 내재하는 흐름과 발전적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후담의 역학사상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51) 『周易四箋』의 번역본 서문에서 번역자는 다산의 역학방법론 중 가장 독창적인 요소로 효변을 들고, 이는 전통역학 해석방식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역학사상 일대 사건이 될 수 있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약용, 방인·장정옥 옮김, 『역주주역사전』, 소명출판사(2007).

52) 효변을 효사 해석에 전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은 양자가 일치하지만, 효사에 대한 구체적 해석 내용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乾卦 初九의 경우, 양자는 모두 효변을 활용하여, 姤卦(䷫) 초효가 된다고 본다. 신후담과 정약용은 모두 姤卦(䷫)의 아래 괘인 巽卦(䷸)가 '들어가 숨는' 상이라는 것을 이끌어 건괘 초구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를 풀이한다. 그러나 신후담이 "이는 마치 天風 姤卦의 초효에서 하나의 음이 생겨나 잠잠히 있지 않고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형국과 같으므로, '쓰지 말라(勿用)'고 경계한 것이다"라 하거나 "乾卦의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된 의미로 삼는데, 초효를 쓰는 것을 왜 경계하는가"를 논의하는 것과 달리, 정약용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 정약용은 건괘 초구를 해석하면서 '推移'와 '物象'을 아울러 적용하여 초구 龍의 상은 근원적으로 곤괘에서 초효가 변한 震卦의 상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는데, 신후담의 건괘 해석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병수, 「하빈 신후담의 역학연구와 이해」. 『한국사상사학』 16권, 한국사상사학회, 2001.
- 신용일, 「신후담의 『周易象辭新編』에 관한 교육적 고찰」. 『교육문화연구』 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7.
- 신후담, 『周易象辭新編』. 아세아문화사, 2006.
- 정약용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주역사전』. 소명출판사, 2007.
- 『周易傳義大全』. 학민문화사 영인본, 2008.

## 국 문 요 약

이 글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역학자인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의 역학사상을 그의 주저 『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을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은 신후담 역학사상연구의 첫걸음으로 건괘(乾卦)를 중심으로 그의 『주역』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역상사신편』은 신후담의 중기역학사상을 담고 있는 저작이다. 27세에 집필에 착수하여 33세에 완료한 이 저작에서 신후담은 정주(程朱)역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미 자신만의 『주역』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역』의 편제에 대하여 신후담은 『주역전의(周易傳義)』와 같이 전체를 12편으로 나누지만, 곤괘(坤卦) 이하의 배열구조는 옳지 않다고 보고, 경(經)은 경(經)대로, 전(傳)은 전(傳)대로 분류하는 건괘의 괘사-효사-단전-상전의 체제로 『주역』 전체를 다시 편집한다. 이는 『주역』의 ‘경’ 부분과 ‘전’ 부분에는 일정한 사상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후담은 괘효사를 해석할 때 각 효의 자리(位)와 그에 따른 상(象)을 면밀히 분석한다. 상을 통하여 ‘의리’를 도출하며 점(占)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특히 효변(爻變)을 효사 해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명시하여 각 효를 모두 효변에 입각해 풀이한다. 상과 효변에 입각한 『주역』 해석은 신후담에게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는 정주(程朱)의 역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조선 역학사에서 신후담 이전에 효변을 활용한 괘효사 해석의 사례는 간간이 있었지만, 『주역』 효사 전체를 효변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사례는 아직 찾을 수 없다. 또한 한 세대 뒤 인물인 정약용(1762-1836)이 효변을 『주역』 해석의 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음을 볼 때, 양자의 효변론에 대한 비교연구, 더 나아가 성호(이익)학과 역학사상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신후담의 역학은 ‘의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주의 역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효의 자리와 상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종합하고, 효변을 괘효사 해석의 중심방법론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주역』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14. 3. 20.

**심사일** 2014. 5. 1.

**게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하빈(Habin), 신후담(Shin Hudam), 『주역』(Zhouyi), 상(image)

Shin Hudam's Interpretation of *Zhouyi*

Choi, Young-jin · Yi, Sunh-gyoh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heory of Yi(易) held by Shin Hudam(愼後聃, 1702-1761) by examining his *Zhouyixiangcixinbian*(『周易象辭新編』). In particular, I focus on his interpretation of Qian Gua(乾卦) as it is the steppingstone of studying his theory of Yi. Shin starts to write *Zhouyixiangcixinbian* when he is 27 and finishes it at the age of 33. So, it represents his thoughts of Yi in the middle period of his academic career. In this book, Shin develops his own interpretation of *Zhouyi*(『周易』), drawing upon Cheng Yi's and Zhu Xi's theories. He divides *Zhouyi* with 12 sections as in *Zhouyizhuanyi*(『周易傳義』). However, unlike the existing way, he rearranged *Zhouyi* separating the Scriptures(經) from the Interpretations(傳). This reorganization reflects his view that there is a theore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kinds of portions in *Zhouyi*.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hexagram and the line, Shin fully analyzes the place of each line(爻) and its corresponding image(象). He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hexagram and the line without mentioning divination(占). Especially, he explicates each line based on the principle of lines' change(爻變). Shin's theory of Yi(易) is distinguished from Cheng Yi's or Zhu Xi's in that it is built upon the images and the principle of lines' change in interpreting the lines. It also precedes one of the four interpretations of *Zhouyi* known as *xiaobian*(爻變) given by Jung Yakyoung(丁若鏞, 1762-1836). In conclusion, Shin's theory succeeds Chen Yi's and Zhu Xi's in that it employs the implications(義理), whereas it differs from them in that it highlights the place of each line and its corresponding image and takes the principle of the lines' change as the principal method of interpreting *Zhouyi*.